

## 질문으로서의 아름다움

정승일의 <아름다운 기술>은 거울로 세워진 육각형의 구조물로 거울에 비친 반영을 통해 아름다움에 대한 두 개의 질문을 가시화한다. 작업이 위치한 장소에서 각각의 거울 면은 캠퍼스 전체를 파편으로 반영하고 있기에 보는 이 한 자리에서 다각적 관점으로 장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바깥이 장소를 바라보도록 의도되었다면, 안으로 들어가면 풍경 안에서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 안과 밖 사이의 극단적 이질성의 효과는 상당히 풍부하다. 밖에서 풍경을 바라보는 낭만주의적 감상자가 구조물 안으로 들어가자 거울의 면에 비친 다각적 시점의 자신을 나르키소스의 시선으로 탐닉하는 '나-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정승일의 작업은 거울 효과에 의해 장소를 해체하고 새로운 장소에 관한 인식을 제시한다.

- 정현(인하대학교 교수, 미술평론가)

APMAP 2015 yongin - researcher's way 글 '아름다움과 배움' 중 일부

## Beauty as a Question

The Beautiful Technology by Seung-il Chung is a hexagonal structure made of mirror. Reflections on the mirror visualize two questions of beauty. Each mirror faces and reflects fragments of the campus so that a viewer can see various angles from where he or she stands. On the outside of the structure, the viewer can see the surroundings while inside the structure, the viewer can see the reflection of him or herself standing within the surrounding scenery. There is a dramatic difference between the inside and outside. A romantic observer looking at the scenery outside, once stepping inside will find the „I-ego” and indulge in a narcissistic view at several perspectives of oneself. Chung's work dismantles the location and suggests awareness of the new space.

- Jung Hyun(Professor, Inha University, Art Critic)

APMAP 2015 yongin - researcher's way, A part of the text „Beauty and Learning”